

# 임서의 번역과 중국적 수용

- 《巴黎茶花女遺事》를 중심으로 -

金素貞\*

〈目次〉

|                             |                              |
|-----------------------------|------------------------------|
| I. 들어가는 글                   | 1. <i>La Dame</i> 의 편찬 의도 삭제 |
| II. 번역의 시대적 배경              | 2. 여주인공의 특성 변화               |
| III. 중국적 ‘다화녀’ 창조에 동원된 번역전략 | 3. 남주인공의 개성 약화               |
|                             | IV. 나오는 글                    |

## I. 들어가는 글

《파리 다화녀가 남긴 이야기(巴黎茶花女遺事)》(이하 ‘다화녀’)는 청말 민초 시기의 번역대가 임서(林紓)가 번역한 최초의 서양소설로 유명하다. 임서의 번역생애에서 최초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양문학번역사에서도 최초로서의 명성을 지닌 《다화녀》는 서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고 서양문학에 대한 번역열기를 이끈 시초로서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현재 중국번역사에서 정전(canon)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 동안 《다화녀》에 관한 연구는 ‘최초’로 번역된 서양문학이 중국현대문학의 발생과 중국의 근대성 형성에 미친 영향에 집중해왔다.<sup>1)</sup>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 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번역연구의 시각에 기대어 《다화녀》에 사용된 번역기법과 그 중국적 수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

\* 부산대학교 연수연구원

1) 袁進(1996), 許海燕(2001), Rey Chow(1997), Hu Ying(2000) 등.

화녀》와 중국현대문학 혹은 중국의 근대성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밝혔던 선행 연구와 차별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화녀》를 원천텍스트(source text)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Alexandre Dumas fils)<sup>2)</sup>의 *La Dame aux Camélias*(춘회)(이하 ‘*La Dame*’)<sup>3)</sup>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번역으로 인해 여주인공 마르그리트의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고찰할 수 있다. 임서의 번역을 통해 마르그리트는 ‘다화녀’<sup>4)</sup>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면서 중국적으로 변모하였고, 청말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899년 초판 번역이 나온 이후로 10여 년 동안 ‘다화녀’는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면서 수차례나 재생산될 만큼 지속적이고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sup>5)</sup> 따라서 본고는 전제왕조의 멸망을 목전에 앞둔 1900년대 초기 10여 년간 중국을 뒤흔든 ‘다화녀’ 현상의 기원으로서 《다화녀》가 갖는 각별한 의미에 주목하여, 중국에서 《춘회》의 최초 읽기가 시작된 지점인 임서의 《다화녀》를 대상으로 번역과정에서 어떤 손질과 가공을 거쳐 중국적 ‘다화녀’ 형상이 만들어졌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 2) 피스(fils)는 프랑스어로 ‘아들’이라는 뜻으로,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작가로 유명한 그의 아버지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와 구별하기 위해 ‘뒤마 피스’라 표기한다.
- 3) 여주인공 마르그리트는 연극관람을 할 때 항상 동백꽃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화녀’ 즉 동백꽃 아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본고에서는 《춘회》의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target text)를 구분하기 위해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La Dame aux Camélias*를 *La Dame*으로 표기하고, 임서의 번역을 《다화녀》로 표기한다.
- 4) 본고에서는 임서의 번역을 거쳐 재창조된 여주인공을 ‘다화녀’로 표기함으로써 원천텍스트 *La Dame*의 ‘마르그리트’와 구별하기로 한다.
- 5) 북경(北京)대학 진평원(陳平原) 교수의 지적처럼 청말 당시에 큰 인기를 끈 것은 소설로서의 《다화녀》라기 보다 여자주인공 ‘다화녀’ 형상이었다. (陳平原, 《中國小說敘事模式的轉變》,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2003, 44쪽 참조) 다화녀의 재창조는 1907년 春柳社의 《다화녀》 공연을 시작으로, 1907년 王鍾聲의 소설 《新茶花》, 春陽社의 신극 《新茶花》, 1909년 新舞臺의 신극 《二十世紀新茶花》, 1910년 文明大舞臺의 신극 《二十世紀新茶花》 등으로 이어졌다. 청말민초시기 다화녀의 재창조 현상은 원작을 존중하는 번역규범이 확립된 5.4시기 이전 기능주의적 번역관이 우세했던 청말민초의 번역규범 하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 II. 번역의 시대적 배경

《다화녀》에 사용된 번역기법과 중국적 ‘다화녀’ 형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번역자의 번역계기와 번역당시의 개인적 상황, 그리고 독자층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화녀》 번역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복주선정학당(福州船政學堂)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왕수창(王壽昌)이 임서에게 함께 번역해보자고 권유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왕수창은 복주(福州) 마미선전전학당(馬尾船政前學堂)을 졸업한 뒤 파리로 가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1893년에 귀국한 정통 프랑스 유학파였다. 프랑스어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문학에 대한 안목도 가진 왕수창이 구술하고 임서가 그것을 듣고 중국 문언체로 필술한 협업 과정을 거쳐 《다화녀》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임서가 《다화녀》를 번역할 무렵, 그는 모친과 아내를 잇달아 여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중이었다. 1895년 12월에 모친을, 2년 뒤 1897년 여름에는 아내 유경자(劉瓊姿)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42세에서 44세 때의 일이었다. 특히 《다화녀》의 번역 직전에 겪은 아내의 사망은 그의 번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아내 유경자는 병약하고 가난했던 임서를 28년 간 정성스럽게 내조했던 조강지처였던 데다가 예기치 못했던 사망이었기 때문에 임서에게 가한 충격은 엄청났다. 진사에 급제하여 조강지처의 은정에 보답하고자 했던 임서의 꿈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 임서에게 왕수창은 《다화녀》는 슬픔을 이겨내는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 위안하면서 번역을 권유했다.<sup>6)</sup> 임서의 다른 번역소설이 강한 정치적 또는 계몽적 목적 아래 착수된 것과 달리 《다화녀》는 임서의 절친한 친구이자 상해(上海) 언론출판인 고몽단(高夢旦)의 말처

6) 《다화녀》의 번역시기는 1897년 여름 임서가 아내를 여의고 난 직후였을 것이라는 張俊才의 견해에 따른다. 張俊才, 〈林紓年譜簡編〉, 薛綏之, 張俊才 編, 《林紓研究資料》, 福建人民出版社, 1982, 22쪽.

럼 정말 ‘유희의 작품(遊戲之作)’<sup>7)</sup>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임서의 자술에 의하면 이 소설을 번역하면서 다화녀의 불행 때문에 붓을 내려놓고 온 적이 수차례였다고 한다.<sup>8)</sup> 설사 다소 과장된 표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가 고급 창부 마르그리트의 비극적 사랑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아내를 잃은 개인적 슬픔이 연인을 잃은 아르망의 슬픔에 이입됨으로 인해 그처럼 큰 감정의 공명이 울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동한 데에는 임서 자신의 풍부한 정감 세계도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서는 가족과 친구의 관계에서 정감의 교류를 중시하는 충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효심이 지극한 효자였는데, 1870년 부친이 위독했을 때 19세였던 임서는 복건지방의 미신에 따라 향을 피우고 땅에 엎드려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다가 지나친 과로와 슬픔으로 수차례 각혈까지 한 적이 있었다. 이후 모친의 병세가 악화했던 1895년에도 폭우가 내리는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기도 올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정도였으며, 모친께서 돌아가시자 60일 동안 매일 밤마다 곡제(哭祭)를 올리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수차례였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자 그의 유족을 부양하고 자식의 혼사까지 치러준 의인(義人)이기도 했다. 이러한 효, 의 등 유가 윤리도덕의 실천은 부모와 친구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가 사랑의 감정을 매우 중시한 인물이었다는 점은 전해 내려오는 어떤 기녀와의 일화<sup>9)</sup>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임서가 아내를

7) 上海圖書館 編, 《汪康年師友書札·二》, 上海古籍出版社, 1986, 1654쪽.

8) 林紓, 《露漱格蘭小傳·序》, 阿英, 《晚清文學叢鈔》, <http://wagang.econ.hc.keio.ac.jp/~chengyan/index.php?%E6%99%A9%E6%B8%85%E6%96%87%E5%AD%B8%E5%8F%A2%E9%88%94%2F%E3%80%8A%E9%9C%B2%E6%BD%84%E6%A0%BC%E8%98%AD%E5%B0%8F%E5%82%B3%E3%80%8B%E5%BA%8F>

9) 이 사건은 1897년 여름 정실부인 유경자가 사망한 이후 1898년 두 번째 아내 양도욱(楊道郁)을 들이기 전까지 임서가 배우자 없이 혼자 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의 뒤 어떤 가기(歌妓)가 흠모의 정을 전해왔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해서 주위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기녀와의 사랑은 진지할 것도 없고 흠모되지 않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봤을 때, 임서의 단호한 거절은 지나치게 보였던 것이다. 임서는 자신의 전일한 마음, 한 사람에게 바치는 변치 않는 마음을 기녀는 헤아려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sup>10)</sup> 자유로운 교제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기녀에게 조차 전일한 애정을 쏟으려 했던 임서의 행동은 분명 특별하였다. 이러한 임서의 충직한 심성과 넘치는 정감세계는 ‘다화녀’의 변치 않는 사랑에 깊이 감동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화녀》의 번역은 번역자 개인의 슬픔을 위안하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유목적적 의도에서 착수한 것이 아니었다. 번역자 개인에게 갖는 《다화녀》의 이러한 효용적 의미는 뜻밖에도 독자들의 손으로 넘어간 후 그들에 의해 읽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유효했다. 임서와 왕수창이 번역한 《다화녀》가 간행되었을 당시 그것의 최초 독자층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강남일대의 문인계층에 한정되었다.<sup>11)</sup> 1899년 2월 복주에서 초판본 외려장판(畏廬藏版)이 세상에 나온 뒤 4개월 만에 상해에서 왕강년판(汪康年版)이 재간행되면서 비로소 청년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외려장판 《다화녀》는 임서가 살던 복건지방을 중심으로 강남일대의 전통문인 사대부 사회에 전파되었고 이들의 읽기방식은 그 뒤를 이어서 대두한 일

10) 李歐梵 著, 王宏志 等 譯, 《中國現代作家的浪漫一代》, 新星出版社, 2005, 44쪽.

11) 복주에서 간행된 초판본 ‘외려장판(畏廬藏版)’의 책 규격은 전통문인들이 휴대했던 책상자에 넣기에 알맞은 크기였던 것으로 보아 이 책의 유통범위는 임서 주변의 전통문인계층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Hu Ying, *Tales of Translation: Composing the New Woman in China, 1899~1918*,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76쪽 참조) 이는 일본 명치(明治) 35년(1902년)에 長田秋壽가 번역한 《춘희(椿姬)》, 한국의 일제강점기 1917년에 진학문이 번역한 《홍루(紅淚)》가 예상독자층을 여성 혹은 일반대중으로 삼았던 것과 뚜렷이 차별되는 점이다.

반대층의 읽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복건지방의 개혁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독자층은 그 당시 내우외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1884년 발생한 청프전쟁에서 복건수사(福建水師)가 습격당해 중국군함이 궤멸되고 선정공장이 파괴되었고, 그로부터 10여년 후에 발생한 청일전쟁의 해전에서 중국병사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 등으로 양무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특히 전사한 해군 가운데 현지의 복건선정학당 출신이 상당수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충격을 한층 가중시켰다. 뒤이어 1898년 변법유신의 실패로 6군자 사건이 발생하여 복건인사 임욱(林旭)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함으로써 복건개혁인사들의 슬픔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애당초 아내를 여원 임서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개인적 동기에서 번역한 《다화녀》는 복건개혁인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일대 문인계층의 시대적 고통을 표출하고 위안하는 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엄복(嚴復)의 “가련하게도 한 권의 《다화녀》가 지나의 객지를 떠도는 이의 단장을 끊었다”<sup>12)</sup>는 시구가 암시하듯, 《다화녀》는 전통문인계층의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강남 일대의 문인들은 전일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쓸쓸하게 죽어간 비련의 여인 ‘다화녀’를 청 왕조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서양열강의 침입과 왕실의 무능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등용되지 못하는 자신들의 슬픔에 빗대어 독해함으로써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은유하는 코드로 활용했던 중국고전시가의 문학전통, 그리고 《다화녀》에 동원된 특수한 서사기법 등도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sup>13)</sup> 서술자가 ‘나’에서 ‘小仲馬(뒤마 피스)’로 변화함으로써 즉, 서술자가 ‘나’라는 허구의 인물에서 실존하는 작가로 바뀜으로써 작품은 실재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중국 고대 역사서의 서사기법에 익숙했던 문인계층에게

12) “可憐一卷茶花女，斷盡支那蕩子腸。”嚴復，〈甲辰出都呈同里諸公〉，王棊編，《嚴復集》第二冊，北京，中華書局，1986，365쪽.

13) Hu Ying, 앞의 책, 100쪽.

이러한 서술자의 변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었다. ‘小仲馬曰’<sup>14)</sup>로 시작되는 서사기법은 사실 중국의 역사전적에 해박했던 입서의 학문적 소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기(史記)》에서 사마천(司馬遷)이 ‘太史公曰’로 문두를 열면서 역사가로서의 논평과 의견을 삽입하는 기법에서 연원한 것이다. 서술자가 ‘나’에서 ‘뒤마 피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르망의 이야기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서술자 ‘나’는 아르망의 슬픔에 적극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인물로 바뀌어버렸다. 아르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술자 ‘뒤마 피스’는 “나는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놀라고 감탄하였다(余傾聽至終, 或愕或嘆)”<sup>15)</sup>라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 반응을 첨가했다. 서술자의 신분 변화 그리고 감정적 체험을 드러내는 서사기법은 독자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는데 분명 효과적인 장치였다.

### Ⅲ. 중국적 ‘다화녀’ 창조에 동원된 번역전략

#### 1. *La Dame* 의 편찬 의도 삭제

번역방법에 있어 청말시기에는 충실한 번역(faithful translation)보다 번역자의 해석과 개입을 허락하는 자유로운 번역(free translation)이 우세했다. 《다화녀》는 *La Dame* 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역하는 기초 속에서 축약, 첨가, 삭제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화녀》의 번역에 대해 일찍이 전중서(錢鍾書)는 창녀 루이즈의 임신과 낙태, 그리고 죽음의 과정이 축약된 것을 지적하였으며<sup>16)</sup>, 진평원(陳平原) 역시 마르그리트의 유물 경매 장면과 그녀의 여동생에 관한 서술 등이 삭제되었다고 지적했

14) 小仲馬 著, 林紓, 王壽昌 譯, 《巴黎茶花女遺事》, 北京, 商務印書館, 1981, 3쪽.

15) 같은 책, 15쪽.

16) 錢鍾書, 〈林紓的翻譯〉, 錢鍾書 等 著, 《林紓的翻譯》, 商務印書館, 1981, 42-43쪽.

다.<sup>17)</sup> 이 외에도 남녀 주인공의 애정 표현—포옹, 입맞춤 등을 축약 혹은 생략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축약과 생략은 원천텍스트의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의 이해에 관건이 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원천텍스트에 관한 충실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La Dame*에서 서술자 ‘나’가 마르그리트의 인생에 대해 직접적인 서술을 했던 부분을 삭제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원작가 뒤마 피스의 편찬 의도가 담긴 부분이기도 한데 번역자는 이를 대폭 삭제하고 전후를 슬쩍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번역했다. 삭제한 부분은 서술자 ‘나’가 마르그리트의 유물 경매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마농 레스코》를 읽다가 창부(娼婦) 마농과 마르그리트의 가련한 인생에 관해 회고한 부분으로, 원작자 뒤마 피스의 기독교적 배경을 녹여낸 부분이자 이 책의 편찬 의도를 밝힌 중요한 부분이다.<sup>18)</sup> 서술자 ‘나’는 마농과 마르그리트는 비록 창부였지만 다행이도 영혼의 순수성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었고, 그로써 그들의 삶은 참된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칭송하였다. 연인 아르망의 장래와 그의 가문에 오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고 쓸쓸히 죽어간 마르그리트의 인생을 기독교적 죄인의 회개 과정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서술자 ‘나’는 욕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사랑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게 된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는 독자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임서의 번역 《다화녀》에서는 사랑을 통한 속죄,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의미를 대폭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형시켰다.

책을 구입하느라 돈을 다 써서 경매인에게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책 위에는 “아르망 뒤발이 마르그리트에게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라

17) 陳平原, 《陳平原小說史論集》(中),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633쪽.

18) Alexandre Dumas fils, *La Dame aux Camélias*, Paris, Michel Lévy frères, 1852, 27-32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무려 6쪽 분량을 삭제했다.



는 몇 글자가 초서로 적혀 있었다. 나는 “부끄럽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살아 있을 때 마농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마르그리트가 스스로 그녀만 못하다고 부끄러워했던 것일까? 아니면 아르망이 이 말로 마르그리트를 풍자했던 것일까? 그런데 아르망이 만일 마르그리트를 풍자했다면 마르그리트가 그것을 어찌서 받았을까. 마농은 유명한 창부였는데 살았을 때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죽고 난 뒤에는 잊혀져 쓸쓸해졌으니 마르그리트의 신세와 비슷했다. 마농은 임종 때 사랑하는 이의 팔에 머리를 안길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정이 올바른 길로 돌아갔으며, 그 사람은 자신의 눈물로 젖신 흙을 가지고 무덤을 쌓아주려고까지 했다. 내가 보기에 경매할 때 사람들의 소리는 비록 시골벽적했지만 사실 마르그리트의 죽음은 마농 같은 이들과 다름없이 쓸쓸할 따름이었다. 합산을 내던 그 때, 경매에서 번 150,000프랑 가운데 3분의 2는 채권자에게 갖고 나머지 50,000프랑은 마르그리트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주었다. 시골에 살던 여동생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돈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로 파리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마르그리트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及既得書, 而苦無錢, 乃令司賣者送至余寓, 書上草書云“亞猛著彭贈馬克慚愧”數字. 余疑“慚愧”二字, 不知所謂, 豈馬克生時, 亦深悉漫郎之爲人, 愧弗如乎? 抑豈亞猛以此譏馬克耶? 然亞猛苟譏馬克, 馬克豈復受之. 且漫郎名媼也, 生時喧鬧, 死亦寂寞, 與馬克身世略近. 漫郎臨命時, 以首枕所歡臂上, 此時性情一歸於正, 其人至欲以己之眼淚滋土築其墳. 余觀拍賣時人聲雖喧鬧, 實則馬克之死, 與漫郎等一寂寞耳. 綜計此時, 拍賣所得一百五十千佛郎, 以三分之二歸債家, 餘五十千佛郎, 與馬克之姊及其兄. 姊屏居鄉曲, 一旦驟得巨資, 若出意表矣. 自時厥後, 巴黎之人, 幾無稱馬克者.)<sup>19)</sup>

이처럼 《다화녀》는 호화롭고 향락적인 삶을 살다간 고급 창부의 쓸쓸한 사후(死後) 정경을 묘사하는데 그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 방탕한 삶을 살던 마르그리트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아르망과의 이별을 선택함으로써 고통스런 참회의 길로 들어섰다는 *La Dame*의 기독교적 해석이 완전히 없어졌음은 물론, 안락한 침대에서 임종을 맞은 마르그리트가 실은 불모지 사막에서 죽은 《마농 레스코》의 여

19) 小仲馬, 앞의 책, 6-7쪽.

주인공 마농보다 훨씬 비참했다는 대비의 서사기법도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르망이 마르그리트에게 선물한 《마농 레스코》에 수기(手記)로 적힌 ‘부끄럽다’는 의미에 대한 오역까지 더해짐으로 인해 *La Dame*의 서술자 ‘나’가 창부에 대해 갖는 각별한 연민의 정서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로써 이 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쓸쓸하게 잊혀져간 고급 창부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가벼운 도입 서사단계로 기능할 뿐이었다.

*La Dame*에 깔린 기독교적 의미를 지우기 위한 작업은 편찬의도를 삭제한 데서 뿐만 아니라 번역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지켜졌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유일신을 가리키는 ‘Dieu’를 인간의 운명을 주재하는 일반신 ‘天(하늘)’으로 번역하였으며, 그리고 마르그리트가 일기에서 자신이 이렇게 일찍 죽게 된 것을 한탄하며 ‘la volonté de dieu soit faite!(주여, 뜻대로 하옵소서)’<sup>20</sup>라고 했던 부분을 “天乎, 天乎!(하늘이여, 하늘이여)”라고 번역함으로써 중국 민간의 숙명론적 색채를 띠게끔 바꾸어 놓았다.

## 2. 여주인공의 특성 변화

### ① 마르그리트의 결함 약화

《다화녀》는 마르그리트의 결함을 약화시킴으로써 *La Dame*에 뚜렷하게 드러난 창부의 양면성 ‘타락한 욕망/고결한 정신’의 대비 구조가 무너졌다. *La Dame*에서 마르그리트는 한편으로는 창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실한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양면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La Dame*에서는 마르그리트의 육감적인 매력—단단한 걸음걸이, 부드러운 몸매, 뽀로통한 분홍색 코, 가볍게 푸른 빛이 도는 큰 눈, 그리고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정열적인 천성 등을 숨김없이 묘사함으로써 마르그리트가 갖는 창부의 일면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sup>21)</sup> 그러

20)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357쪽.

나 《다화녀》에서는 창부에 대한 육감적인 묘사를 전부 삭제하고 오로지 그녀의 고결한 정신만을 부각시켰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이 변형되었다.

이 여인은 매우 고결한 정조를 가지고 있었고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았다. 대개 사람들이 마르그리트에게 친밀하게 대하면 마르그리트는 더욱 예를 갖추면서 아무도 깊게 사귀지 않았는데, 생각컨대 반드시 정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에게 견줄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았다. 마르그리트는 손님을 접대할 때 항상 거만하고 고고한 태도를 보이며 그다지 예를 갖추지 않았는데, 마르그리트의 정절은 그런 천박한 이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此女高操凌雲, 不汚塵穢. 凡人之親馬克, 及馬克之加禮於人, 均不爲知交, 意者須有精顯敦摯之人, 始足以匹之. 馬克接人, 恒傲狷落落, 不甚爲禮, 余固知馬克之貞, 非可以鄙陋于也.)<sup>22)</sup>

고결한 정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창부로서 풍겼던 육감적인 매력과 정열적인 천성 등은 삭제되어야 했다. 그녀의 사인(死因)이 바뀐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였다. 폐병으로 죽게 된 이유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적 요인 때문이었다고만 번역함으로써 창부의 생활방식이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삭제했다.<sup>23)</sup> 또 귀족 남성에 대한 의존적 태도도 감추었다. 아르망과 사랑이 시작될 때 마르그리트는 지금까지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었던 늙은 공작이 알게 되면 경제적 지원이 끊어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다화녀》에서는 “il m'abandonnera,

21) 같은 책, 109쪽. 한글 번역은 A. 뒤마, 안형욱 옮김, 《춘희》, 홍신문화사, 1994, 97쪽 참조.

22) 小仲馬, 앞의 책, 22쪽.

23) *La Dame* “ma mère est morte de la poitrine, et la façon dont j'ai vécu jusqu'à présent n'a pu qu'empirer cette affection.”(어머니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활방식이 나의 이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았으니깐요.)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330쪽; A. 뒤마, 앞의 책, 276쪽. → 《다화녀》 “嚮吾母亦死於病肺, 瘵根所貽, 若家業留以畀余者.”(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폐병으로 죽었는데 마치 가업을 나에게 남겨준 것처럼 병의 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小仲馬, 앞의 책, 73쪽.

et qu'est-ce que je deviendrai?(그는 아마 날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오역까지 범함으로써 공작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창부의 속성은 가려지고 오히려 아르망이 공작의 질투를 받아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연인의 모습이 부각되었다.<sup>24)</sup>

이처럼 《다화녀》에서는 마르그리트 자신이 가진 결함이 약화됨으로써 ‘타락한 욕망/고결한 정신’의 대비 구조가 무너지고 그 대신 타락한 영혼을 가진 다른 창부와 비교함으로써 ‘탕부(蕩婦)/정부(貞婦)’의 대비 구조가 새로 만들어졌다. 타락한 영혼을 가진 탕부와 고상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진 다화녀의 대비구조는 다음의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다화녀는 아르망의 연인이 되고 나서도 G백작의 접대에 응했다. 왜냐하면 아르망과 시골 부지발로 가서 몇 개월 동안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다화녀는 자신의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 중압감을 견디며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백작을 접대한 것이었다. 결코 G백작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르망은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생각에 불같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곧장 이별을 통보

24) *La Dame* “Eh bien! et le duc?”(그러면 그 공작은요?) “Quel duc?”(어떤 공작 말입니까?) “Mon vieux jaloux.”(내 늙은 질투쟁이 말예요.) “Il n'en saura rien.”(그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Et s'il le sait?”(그렇지만 만일 알게 된다면?) “Il vous pardonnera.”(당신을 용서해 줄 테지요.) “Hé non! il m'abandonnera, et qu'est-ce que je deviendrai?”(당치도 않아요! 그는 아마 날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죠?)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130쪽; A. 뒤마, 앞의 책, 114쪽 → 《다화녀》 馬克曰：“何以處公爵?” 余憫問何人。馬克曰：“即尋常保護我之公爵也。” 余曰：“彼惡知之?” 馬克曰：“知之奈何!” 余曰：“公當恕我” 馬克曰：“難必。”(마르그리트가 말했다. “그러면 공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는 누구인지 놀라서 물었다.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공작말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말했다. “공작께서는 마땅히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할테죠”(오역—필자 주)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小仲馬, 앞의 책, 27쪽.

하는 편지를 써 보냈다. 본래 시골 부지발 별장에 가서 꿈같은 휴가를 함께 즐길 기대에 부풀어 있던 마르그리트는 아르망의 경솔한 행동을 원망하면서 아르망을 사랑하게 된 이유와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다화녀》에서는 이런 마르그리트의 섬세한 심리묘사는 상당히 간략화되었다. 그 대신 귀족 남성의 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된 엄치없는 전형적인 창부와의 대비를 통해 다화녀는 아르망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려 깊고 자주적인 여성으로 탈바꿈했다.

따라서 제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아르망이 조금이라도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비록 여자지만 생각과 지혜는 남들과 매우 다른데 그대는 어찌 저를 보통 여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잠시 빈 시간에 돈벌이를 한 것은 아르망을 보전하고 또 과거의 빚을 혼자 힘으로 탕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굳게서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어찌 절교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 당신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교제한 귀족 자제들 가운데는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몇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화초 한 다발을 선물로 주어도 저는 거짓된 얼굴빛을 띠고 일순간의 만족을 구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我故深秘不語，斷不欲亞猛半星難過也。我雖女子，而胸臆腦氣迥不同人，君豈能以常女子目我？且我一晌空際經營，即欲保全亞猛，並自空其宿負；君苟知此，何尚有絕交之書？..... 君觀我當日往來貴遊子弟，有幾破其家，而余仍弗答；有一花一草之贈，而假以顏色，余蓋求其片時稱心耳。)<sup>25)</sup>

이상에서와 같이 번역자는 돈을 대가로 육체와 마음을 아무한테나 내어주는 일반 창부와는 다른 지조 있는 여성의 항변으로 바꾸었다. 귀족 남성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즐겁게 해 주는 존재에 불과한 창부, 그 직업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공허감과 고독, 그리고 창부의 생활습관을 고치는 대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 등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간략화되었고, 창부의 변덕

25) 小仲馬, 앞의 책, 43-44쪽.

스런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한 마르그리트의 대사도 완전히 삭제되었다.<sup>26)</sup> 이러한 조치는 번역자가 마르그리트가 가진 창부의 속성을 전면에 드러내길 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최초이자 진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화녀의 대사에 “대개 나는 준결들을 두루 접해보았지만 아르망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盖余周閱時彥, 無第二人愛我如亞猛者.)”<sup>27)</sup> 를 첨가했다.<sup>28)</sup>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의 사랑에는 ‘최초’의 의미가 더해졌다.<sup>29)</sup> 번역자는 ‘최초’가 갖는 ‘정신적’ 순결의 의미에다가 ‘육체적’ 순결의 의미를 더했다. 아르망을 알기 이전에 G백작을 포함한 귀족 남성들과 맺은 관계는 직업상의 만남이었을 뿐, 마음을 주고받았거나 성적 접촉은 결코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형시켰다.

26) “Nous nous donnons tantôt pour une chose, tantôt pour une autre. Il y a des gens qui se ru metaient sans rien obtenir de nous, Il y en a d'autres qui nous ont avec un bouquet. Notre cœur a des caprices; c'est sa seule distraction et sa seule excuse. Je me suis donnée à toi plus vite qu'à aucun homme, je te le jure.”(어느 때는 이 핑계로 또 어느 때는 저 핑계로 몸을 팔지요. 우리들한테서 얻는 것 하나 없이 파산만당하는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꽃다발 하나로 휘어잡는 남자들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변덕쟁이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변명이고 기분풀이인 걸요. 맹세코 말하지만, 당신한테는 어느 누구에게 보다는 몸을 쉽사리 내맡겼어요.)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202쪽; A. 뒤마, 앞의 책, 174쪽.

27) 小仲馬, 앞의 책, 43쪽.

28) *La Dame*에서는 “et je n'aurais pas à l'avenir d'autre amant que vous.(앞으로 당신만 사랑했지 절대로 또 애인은 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되어 있다.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201쪽; A. 뒤마, 앞의 책, 172쪽.

29) 이들의 사랑은 다화녀에게 뿐만 아니라 아르망에게도 ‘최초’의 사랑이었다고 바꾸었다. 그것은 《다화녀》에서 아르망이 마르그리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창부와 교제가 있었다고 말한 부분—et cela m'était arrivé souvent avec mes autres maîtresses, sans que je m'en préoccupasse fort.(전에 친했던 다른 정부들과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긴 했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사로잡힌 적은 없었습니다.)(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179쪽; A. 뒤마, 앞의 책, 155쪽)을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달성되었다. 小仲馬, 앞의 책, 38쪽 참조.

그런데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이유로써 아르망이 늘 저를 책망하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군의 격한 말을 제가 듣고 나서 군의 깊은 애모가 자기도 모르게 초조함과 분노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탕부를 대했다면 정말 그대를 낚아채고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만 여겼을 겁니다. 군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저 때문에 파산한 이유는 제가 사람을 해칠 정도로 사갈같이 독해서가 아니라 저를 핑계로 한바탕 호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접대할 때 억지웃음과 가식적인 기쁨 외에 다른 기교는 절대 없었으니 어찌 심경을 털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而亞猛時時以外遇責我, 不其冤哉! …… 且君之激語, 在我聞之, 足以知君愛慕之深, 不禁發爲躁怒. 若移以處蕩婦, 則直以君爲飄風過耳爾. 君尤當知彼人因我破家者, 非我毒如蛇蠍, 足以螫人, 彼特借我爲揮霍之豪舉, 故我款接此種人, 舍強笑洋歡以外, 別無他技, 豈能告以心緒?)<sup>30)</sup>

G백작을 접대할 때 육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sup>31)</sup> ‘억지웃음과 가식적인 기쁨’만 지었은 뿐이었다고 번역함으로써 다화녀의 육체적 순결을 부각시켰다. 또 G백작을 가리켜 “예법을 지키는 친구(禮法中之友)”로 명명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예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깨끗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는 다화녀를 지나치게 이상화시키려다가 오히려 실재를 왜곡한 결과가 아니라, 중국의 기녀문화를 기반으로 독해한 결과였다. 사실 청말민국시기 상해의 청루문화는 매춘이 주요기능이 아니었다.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UCSC) 게일 허샤테(Gail Hershatte) 교수에 따르면, 개항장 상해에 살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서양인들은 이러한 중국 청루문화의 특수성에 놀랐다고 한다.<sup>32)</sup> 당시 상해의 고

30) 小仲馬, 앞의 책, 43-44쪽.

31) *La Dame*에서는 “Nous sommes quelquefois forcées d'acheter une satisfaction pour notre âme aux dépens de notre corps”(우리들은 이따금 육체를 희생한 대가로 영혼의 만족을 사들여야 하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201-202쪽; A. 뒤마, 앞의 책, 173쪽.

32) Gail Hershatte, *Dangerous Pleasures: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급 기녀들은 음악가와 가극 배우로 훈련되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고된 훈련을 딛고 가무를 습득한 예인(藝人)으로 존재했고, 그로인해 ‘先生’의 호칭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상해 청루문화는 매춘이 아니라 오락기예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마르그리트가 접대했던 “amant(애인)”을 “友(친구)”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3)</sup>

## ② ‘지극히 정결한 여인’ 다화녀 창조

타락한 영혼을 가진 창부와외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다화녀는 ‘지극히 정결한 여자(至貞至潔之女子)’<sup>34)</sup>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다화녀》에서 다화녀의 곧고 깨끗한 도덕성은 여러 곳에서 강조되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아르망과 다화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La Dame*에서 마르그리트는 아르망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고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폐결핵으로 인한 우울증과 사치스런 생활습관에 물든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갑부인 늙은 공작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여태껏 자신과 교체했던 젊은이들이 서둘러 떠나갔듯 아르망도 결국엔 재산을 탕진하고 진저리를 치며 떠날 것이라 예견했던 것이다. 아르망의 장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쉽게 파멸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르그리트는 거절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스스로를 사랑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던 셈이다. 그런데 《다화녀》에서는 이 의미가 완전히 가려지고 오로지 아르망을 위한 거절로 묘사되었다. 이전에

1997, 103-104쪽 참조.

- 33) “l'idée que cet homme est son amant me fait un mal affreux.(저 남자가 마르그리트의 애인이란 걸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서 못 있겠는걸.)” A. Dumas fils, 앞의 책, 167쪽; A. 뒤마, 앞의 책, 144쪽. → “第余每見一人, 稱爲馬克之友, 余心即如灌沸瀋, 不復能耐.(나는 마르그리트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끓는 물을 끼얹은 듯 참을 수 없었습니다.” 小仲馬, 앞의 책, 168쪽.
- 34) ‘至貞至潔之女子’와 ‘至貞至潔一好女子’는 小仲馬의 앞의 책 29쪽과 46쪽에 나온다.



자신과 교체했던 젊은이들이 가산을 탕진한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마음을 접으라고 다화녀가 아르망에게 충고하는 부분에서 “아르망 님이여, 어찌하여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십니까!(亞猛長者, 何事踵其覆轍!)”<sup>35)</sup>라는 구절을 첨가했으며, 또 훌륭한 배필을 찾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꾸리라고 권유하는 부분에서도 “만일 마르그리트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겁니다. 마르그리트라는 사람은 아르망께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若爲一馬克之身, 顛倒謬亂, 深所不忍. 當知馬克一身, 固未值亞猛若此顛倒謬亂也.)<sup>36)</sup>”라고 붓을 덧대었다. 이로써 다화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남성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적인 인물로 탈바꿈했다.

그 다음은 다화녀가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르망과 충돌하는 장면인데 이 사건은 다화녀가 아르망 몰래 자신의 사치품을 팔아 돈을 마련한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다화녀는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파리 교외에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치품을 하나씩 처분했는데 아르망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책망했다. 아르망은 그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녀에게 해명을 먼저 요구했다. 아르망의 추궁을 받은 마르그리트의 대응, 바로 이 장면은 《다화녀》에서 확연히 다르게 묘사되었다. 아르망이 마르그리트를 향락과 사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보통 창부로 치부한 것, 그리고 소박하고 평범한 생활로 창부를 몰아넣었다는 주위의 비난을 두려워한 것을 삭제했다.<sup>37)</sup> 이로써 《다화녀》에서는 아르망의 생각과 욕망을 훤히 들여다보는 마르그리트의 섬세한 통찰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물질로 사랑을 살 수 없는 이치를 설교하는 도덕군자로 형상화되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굳게서 진실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의복을 걸쳤다 한들 사

35) 小仲馬, 앞의 책, 25쪽.

36) 같은 책, 26쪽.

37)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252-254쪽 참조.

랑이 어찌 사라지겠으며, 이런 거마와 옷, 장신구 따위에 의지해야만 그 사랑을 견고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굳게서는 힘껏 수습해주려 하실테지만, 힘이 다하고 나면 떠나버려 저는 또다시 홀로 쓸쓸히 남게 될 것입니다. (愛人不重在物, 君誠愛我, 即亂頭粗服, 愛何嘗忘, 豈賴此車馬衣飾, 始堅其愛. 君必極力摒擋, 力盡時當復有離索矣.)”<sup>38)</sup>

이상과 같이, 사치품들을 다시 찾아 주겠다고 호언하는 아르망에게 혼자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픈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마르그리트의 헌신적 태도,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에너지로 인해 훌륭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모두 없어졌다. 반면에 다화녀 형상은 어리석은 아르망에게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설교적 인물로 바뀌었다. *La Dame*에서는 아르망과 마르그리트가 똑같은 사랑을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사랑을 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은 사회적 신분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다화녀》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한 다화녀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한 결과 이러한 메시지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천하에는 오로지 정결한 여인만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天下惟貞潔之女, 乃有真情爾)”<sup>39)</sup>라는 아르망 부친의 대사처럼, 《다화녀》에서 정결한 사람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다. 다만 특기해야 할 점은, 다화녀가 창부에서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로 거듭 날 수 있었던 것은 속죄와 구원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유가적 선의식을 일깨움으로써 가능했다. 다시 말해 《다화녀》에서는 마르그리트의 희생적 사랑에 내포된 기독교적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지우고 그 대신 유가적 선행의 의미로 채워 넣었다. 이는 ‘心志之正’, ‘善念’, ‘貞潔’, ‘為善之心’ 등 유가철학의 색채가 짙은 용어가 번역어로 적극 채택됨으로써 가능했다.

38) 小仲馬, 앞의 책, 54쪽.

39) 같은 책, 57쪽.

당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도(父道)를 스스로 보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마치 저의 몸을 비춘 듯했고 그 노인으로부터 하룻 동안 칭찬을 듣고서 제 끈은 심지를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훗날 제가 그의 아들을 보전하려 했음을 증명하고 또 저의 보존시켜주려 했던 마음을 멀리 있는 그의 딸에게 이해시킬 것이 분명하였으니 저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때 저의 강개하고 격렬한 마음이 갑자기 발동하였고, 그래서 군과 이전에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마음은 이 생각으로 인해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 “저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선한 생각을 아버지께서는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한 여인을 되살리는 의미로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신다면 저는 선행의 마음을 고무시켜 남들 앞에 정결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맹세코 공자에게 누를 끼치지도 않을 것입니다.”(至若翁所言, 特自全父道耳; 而一片真誠, 若映射吾身, 吾亦甚樂得此老一日之譽, 知吾心志之正也. 異日果驗吾能保全其子, 且使其女遙領吾相全之心, 吾何樂如之! 此時余慷慨激烈之心, 勃然發動, 遂覺與君前日約誓同居之心, 為此念所遏, 消歇殆盡. …… “翁能許我有此善念, 足以赦吾罪戾乎?” 翁曰: “既信且許之.” “然則請翁親吾額, 當為翁更生一女. 吾受翁此親額之禮, 可以鼓舞其為善之心, 即以貞潔自炫於人, 更立誓不累公子也.”)<sup>40)</sup>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운 것 외에는 어떤 가공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41)</sup> 위 장면은 다화녀가 아르망 부친의 간곡한 부탁을 수락하는 대목으로, 창부의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사랑하고픈 욕망보다 훨씬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귀족 남성성의 노리갯감에 불과했던 창부의 삶을 살아온 다화녀는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에 굽주려 있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다화녀는 창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감싸줄 수 있는 지기(知己)<sup>42)</sup>를 일찍부터 갈망해오던 차에 우연히 아르망으로부터 정성스런 보살핌과 위로를 받고 순식간에 사랑

40) 같은 책, 75-76쪽.

41)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337~338쪽 참조.

42) 小仲馬의 앞의 책 44쪽에 “知己”, “相知之人” 등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sup>43)</sup> 그녀의 사랑에는 이처럼 받고자 하는 욕망이 농후하게 배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더욱 받고자 했던 것은 한 남자로부터의 ‘사랑’을 넘어선 사회로부터의 ‘존경과 찬사’였다. 때문에 아르망 부친으로부터 도덕성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자 애당초 아르망과 했던 사랑의 약속을 과감히 던져버리게 된 것이다. 《다화녀》는 상류 부르주아 남성을 대표하는 아르망 부친 뒤발씨와 순수한 처녀를 상징하는 그의 딸로부터 마르그리트가 얻게 되는 찬사를 충실히 번역했다. 그런데 아르망 부친 뒤발씨는 중국고전소설의 애정소설류에서 등장하는 자유연애를 반대하고 파괴하는 가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물론 뒤발씨의 반대가 마르그리트의 사랑을 파멸로 몰고 간 동인이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표면적인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그녀의 소외감 때문이었다. 즉 뒤발씨는 마르그리트와 대립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아니라 마르그리트를 도덕적 성인으로 인도하는 유가 군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녀의 소외감의 원천은 신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류 부르주아 계층의 존경과 찬사를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칭 ‘박명인(薄命人)’<sup>44)</sup> 다화녀의 숭고한 도덕실천을 묘사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다화녀》는 원작이 갖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비장미가 넘쳐 흐른다. 이 새로운 차원의 비장미는 사랑의 파멸 혹은 다화녀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가련한 운명 속에서도 도덕주체의 완성을 위해 선행을 실천한 다화녀 형상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예술적 경험이다. 번역자가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 내었던 이유가 바로 이 비장미 때문이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다화녀》에서는 다화녀와 아르망의 신분적 차이는 그다지 강

43) 폐병에 걸려 심한 기침을 할 때 마르그리트는 아르망의 보살핌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아픈 것을 보자 흐느껴 울기까지 했는데, 골육의 정을 나눈 사이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미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一見我病, 至於嘔泣, 情非骨肉, 胡遽至此! 我已銘之心肺。) 小仲馬, 앞의 책, 44쪽.

44) 다화녀가 자신을 ‘박명인(薄命人)’이라고 부른 것은 모두 3번으로, 小仲馬의 앞의 책 9, 24, 44쪽 참조.

조되지 않았다. 다화녀는 도덕적 성인의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그녀의 하천한 신분은 오히려 무의미화 되었다. 도덕주체의 완성이라는 유가철학적 의미를 내포한 다화녀의 선행은 뜻밖에도 당대의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사랑의 파멸, 그리고 죽음이 현실적 유용성을 획득하는 구조는 1900년대 초기 10년간 새로운 ‘다화녀’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sup>45)</sup>

### 3. 남주인공의 개성 약화

다화녀는 ‘정결의 여인’, ‘만금의 몸(萬金之體)<sup>46)</sup> 등의 수식어를 갖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존재로 격상되었던 반면, 그녀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개성과 비중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아르망의 경우가 가장 심했는데, *La Dame*에서는 사랑의 열정에 휩싸인 아르망이 겪는 질투, 분노, 후회, 걱정, 고마움, 연민 등 복잡한 심리가 상당한 편폭에 걸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다화녀》의 번역자는 격렬한 사랑에 빠진 아르망의 상태를 전달하는데 소홀했다.<sup>47)</sup> 일례로 아르망이 도박에 손을 댄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연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이차적으로는 사랑의 열정을 식혀줄 오락거리가 필요해서였다. 그런데 사랑의 열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도박에 몰입해야 했던 아르망의 상황을 번역자는 전혀 번역하지 않았다.<sup>48)</sup> 그로 인해 아르망은 정결한 여인 다화녀를 부각시키기 위한 부차적 인물로 격하되었고, 또 부르주아 계급 아르망

45) 가령 《신다화》에서 연인 항경여(項慶如)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첩으로 팔려간 신다화, 《이십세기신다화》에서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고 러시아 원수의 첩이 되어 전쟁지도를 빼내와 중국군의 승리를 이끈 신다화 등이 그것이다.

46) 小仲馬, 앞의 책, 41쪽.

47) 다화녀와 아르망이 마지막 만남을 가졌던 밤에 육체와 마음을 모두 격렬하게 쏟아낸 일을 간략하면서도 다소 다르게 번역했다. “그날 저녁 정경이 얼마나 차디찼을지는 상상할 수 없다.(是夜情景甚冰冷, 不可意測.)” 같은 책, 71쪽.

48) 같은 책, 45쪽 참조.

과 창부 마르그리트 사이의 현격한 신분 차이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런 신분 차이의 무의미화는 결국 아르망의 사랑의 성질을 변질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르망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그의 동정심에서 발로한 사랑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La Dame*<sup>49)</sup>:

- Comment appelez-vous cela?(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sup>50)</sup>
- Du dévouement. (헌신입니다.)
- Et d'où vient ce dévouement? (그런 헌신적 정신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 **D'une sympathie irrésistible que j'ai pour vous. (당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동정심이라고 할까요?)**
- Ainsi vous êtes amoureux de moi? dites-le tout de suite, c'est bien plus simple. (그럼 당신은 저를 사랑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어찌서 솔직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지 못합니까?)—C'est possible, mais si je dois vous le dire un jour, ce n'est pas aujourd'hui. (그렇겠지요. 언젠가 한 번은 그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은 그 말을 못하겠는 걸요.)

《다화녀》<sup>51)</sup>:

馬克曰：“凡人嗜好，皆有名目，並猛所以待我者，其名目爲誰?”(마르그리트가 말했다. “무릇 사람들이 좋아함을 맺을 때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데, 아르망이 저를 특별하게 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余曰：“此所謂德武忙耳(猶華言爲朋友盡力也).”(나는 말했다. “이것은 이른바 더우망<sup>52)</sup>입니다.(친구를 위해 힘을 다한다는 중국어와 같다.)”

馬克曰：“此力奚而來?”(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이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49)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122쪽.

50) A. 뒤마, 앞의 책, 108쪽.

51) 小仲馬, 앞의 책, 25쪽.

52) dévouement의 음역어이다.

余曰：“情不自禁，發而爲此。”(나는 말했다.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정(情)이 발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馬克曰：“然則情愛耳。”余曰：“然，日後當爲馬克言之，今夕且勿言。”(마르그리트가 말했다. “그렇다면 애정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마르그리트를 위해서 그 말을 할 테니, 오늘 저녁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번역자는 마르그리트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동정심에서 솟아난 사랑이었다는 의미를 번역해내지 않았다. 아르망의 사랑에 혼재된 동정심을 제거하고 단지 ‘애정(情愛)’이라고만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dévouement(헌신)’을 음역으로 ‘더우망’이라 번역하고 ‘爲朋友盡力(친구를 위해 힘을 다한다)’는 주를 별도로 달아 놓음으로써 아르망의 사랑은 하층 계층에 대한 연민이 아닌 친구를 위한 우의적 감정으로 변질되었다. 신분적 차이의 무의미화로 인해 부르주아 계급 아르망이 창부의 사랑을 쟁취하려는 정복욕 역시도 충실하게 번역되지 못했다.<sup>53)</sup> 그 대신 이들의 관계는 부부의 예(禮)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전통유가사회의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up>54)</sup>

#### IV. 나오는 글

프랑스 작가 A. 뒤마 피스가 파리 사교계의 실존 인물 알퐁신느 뒤플레시(Alphonsine Duplessis)와 교제했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1848년에 창작한 *La Dame* 는 마르그리트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통해 당시 프랑스

53) “Mais être réellement aimé d'une courtisane, c'est une victoire bien autrement difficile.”(한 창녀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얻기 힘든 하나의 정복입니다.)라는 구절이 전혀 번역되지 않았다. Alexandre Dumas fils, 앞의 책, 155쪽; A. 뒤마, 앞의 책, 134쪽.

54) “以夫婦之禮待之”라고 함으로써 아르망과 마르그리트의 관계를 유가적 부부예를 다하는 관계로 재설정했다. 小仲馬, 앞의 책, 57쪽 참조.

사회로부터 소외받던 창부들의 처지에 깊은 동정의 시선을 보내며 설령 창부라 할지라도 사랑을 통한 속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인간의 노력으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작자의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작품의 사회교화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로부터 50여년 후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멸망을 목전에 앞둔 청나라 말기에 프랑스 유학생과 문인 필술가에 의해 새로운 읽기가 시작되어 중국문화의 강력한 지배에 놓이게 됨에 따라 본래의 특성은 일변하였다. 뒤마 피스의 창작 목표는 가려지고 반면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 여자주인공 마르그리트가 영웅화되었다. 이 전변 이유를 번역자의 심리적 층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회노애락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내면화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훈육된 전통 유가지식인이었던 임서가 어떻게 《다화녀》를 번역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분명 그 상황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에 대한 반응이 섞여 들어갔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임서는 《다화녀》를 읽고 번역할 때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다 간 두 여성—모친, 아내를 떠올리면서 조금도 보답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웠을 것이다. 그는 44세가 되도록 진사(進士)시험에 번번이 낙방해서 가문에 영광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었다. 연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여인을 영웅화함으로써 임서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중국전통의 재자가인식 소설에 익숙했던 문인계층의 독자들에게 있어 목숨을 바치는 희생정신과 선행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씻는 참회의식을 보여준 다화녀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복단대학(復旦大學) 원진(袁進) 교수의 지적처럼, “번역문학은 인물 형상에서 중국전통언정소설의 재자가인 유형을 바꾸어 놓았다. 먼저 인물의 희생정신과 참회의식을 더했다. 중국고대언정소설은 남녀의 한 쪽이 상대방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 심지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거의 묘사하지 않았다. …… 그러나 《다화녀》와 《迦茵小傳》에서 여주인공은 모두 남성 측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 그리고 신성한 애정을 희생하였다.”<sup>55)</sup> 사실 다화녀 형상이 몰고



은 충격은 당시 청말 문인 독자계층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정(貞)’의 실천을 보여주었던 다화녀에 대한 눈물과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르망에 대한 부러움은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전통유가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녹아 있었다. 문인 독자층으로 옮겨온 ‘다화녀’는 조국이자 중국의 전통유가체계를 수호하는 상징적 인물로 거듭났던 것이다.

한편, 연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다화녀 형상으로 인해 사랑은 최고의 도덕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신성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은 중국 전통연정소설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가부장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유가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소로 격상되었다. 중국은 《다화녀》의 번역으로 인해 남녀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도덕적 행위로 긍정하는 큰 전환점을 맞을 수 있었다.

### < References >

Alexandre Dumas fils, *La Dame aux Camélias*, Paris: Michel Lévy frères, 1852.

<http://books.google.co.kr/books?id=MreukKBCjs0C&printsec=frontcover&dq=La+Dame+aux+Cam%C3%A9lias&hl=ko&sa=X&ei=9JXHUubZLs6YlQWI04HQBQ&ved=0CD0Q6AEwAg#v=onepage&q=La%20Dame%20aux%20Cam%C3%A9lias&f=false>

55) “翻譯文學在人物形象上改變了中國傳統言情小說“才子佳人”的模式，首先是增加了人物的犧牲精神和懺悔意識。中國古代言情小說一般不描寫男女之間的一方爲了成全對方的利益，犧牲自己乃至生命，……但在《茶花女》與《迦茵小傳》中，女主角都是爲了成全男方的利益主要是成全男方家庭的利益而犧牲了自己，包括神聖的愛情。”袁進，〈試論近代翻譯小說對言情小說的影響〉，《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1996年3期，178-179쪽.

- Xiaozhongma, Lin Shu & Wang Shouchang trans., *Bali Chahuanü Yishi* (The Lady of the Camellias), Beijing: Commercial Press, 1981.
- Xue Shuzhi & Zhang Juncai Eds., *Lin Shu yanjiu ziliao* (Materials on the Study of Lin Shu), Fuzhou: Fujian People's Press, 1982.
- Zhang Juncai, *Lin Shu pingzhuàn* (A Critical Biography of Lin Shu), Beijing: Zhonghua shuju, 2007.
- Qian Zhongshu, *Lin Shu de fanyi* (Translations of Lin Shu), Beijing: Commercial Press, 1981.
- Shanghai Library Ed., *Wang Kangnian shiyou shuzha* (Letters of Wang Kangnian), Shanghai: Shanghai guji Press, 1986.
- Wang shi Ed., *Yan Fu ji* (Collected Works of Yan Fu) Vol.2, Beijing: Zhonghua shuju, 1986.
- Leo Oufan Lee, Wang Hongzhi trans., *Zhongguo xiandai zuojia de langman yidai* (The Romantic Generation of Modern Chinese Writers), Beijing: Xinxing Press, 2005.
- Chen Pingyuan, *Chen Pingyuan xiaoshuoshi lunji* (Collection of Chen Pingyuan on the History of Fiction) Vol.2, Shijiazhuang: Hebei People's Press, 1997.
- Chen Pingyuan, *Zhongguo xiaoshuo xushi moshi de zhuanbian* (Changes in the Narrative Modes of Chinese Fiction), Xianggang: Zhongwen Univ. Press, 2003.
- A Ying, *Wan Qing wenxue congchao* (A Compendium of Late Qing Dynasty's Literature),
- <http://wagang.econ.hc.keio.ac.jp/~chengyan/index.php?%E6%99%A9%E6%B8%85%E6%96%87%E5%AD%B8%E5%8F%A2%E9%88%94>
- Yuan Jin, "Shilun jindai fanyi xiaoshuo dui yanqing xiaoshuo de yingxiang" (A Study of the impact of modern translated novels on the emergence of the romance novels), *Shanghai Shehui*

- Kexueyuan Xueshu Jikan* (Quarterly Journal of the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3 (1996): 175–183.
- Xu Haiyan, “Lun Bali Chahuanü Yishi dui Qingmo Minchu xiaoshuo de yingxiang”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Lady of the Camellias* on the novels during the late-Qing and early-Republican period), *Ming Qing Xiaoshuo Yanjiu* (The Research on Ming and Qing Dynasties Novels) 4 (2001): 107–115.
- A. Dumas fils, Ahn Hyeonguk trans., *Chun Hui* (The Lady of the Camellias), Seoul: Hong Shin Publishing Co., 1994.
- Rey Chow, *Women and Chinese Modernity: The politics of reading between West and East*, Minnesota: Univ. of Minnesota Press, 1997.
- Hu Ying (胡穎), *Tales of Translation: Composing the New Woman in China, 1899~1918*,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2000.
- Gail Hershatter, *Dangerous Pleasures: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Century Shanghai*, Berkeley &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97.

### <Abstract >

Lin Shu is the most important forerunners in China's history of modern literary translation and his translation imported new ideas, literary styles from the West. *Bali Chahuanü Yishi* (*The Lady of the Camellias*) was the his first work and the first Chinese translation of a work of Western literature. After introducing *Bali Chahuanü* into China, it caused a great sensation. Then the image of *Chahuanü*, the Chinese another name of Marguerite, was constantly being recreated in drama

and fiction during the late-Qing and early-Republican period.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amine translation strategy of *Bali Chahuanü Yishi* cotranslated by Lin Shu and Wang Shouchang and published in 1899. Falling in sorrow of losing mother and wife, Lin Shu persuaded by the oral translator Wang Shouchang initiated translation. Therefore, Lin Shu transfer his sorrow into translation work and rewriting the source text *La Dame aux Camélias* by A. Dumas fils. This article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rce text and the target text *Bali Chahuanü Yishi*.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in order to stress a devotional act of *Chahuanü* to her lover Armand, Lin Shu resorted to such techniques as omission, abridging, addition, etc. As a result, Marguerite was transfigured a faithful subject to lover and a chaste Chinese woman.

Key Words : 《파리다화녀유사》(*Bali Cha Hua Nü Yi Shi*), 임서(Lin Shu), 청말(late Qing period), 번역전략(Translation strategy), 중국적 다시쓰기(Sinicized rewriting), 다화녀 형상(*Cha Hua Nü* image)